

Exercise 1

기계, 과도기, 기회

기계항공공학부 이정민

- 컴퓨터의 발전은 인간이 따라잡을 수 없을 정도로 빠르게 이루어지고 있다고 한다.
- 하지만 나는 현재 인간이 컴퓨터에게 밀리고 있는 것처럼 보이는 것은 컴퓨터기술의 발전으로부터 오는 단순한 과도기적인 현상에 불과하다고 생각한다.
- 산업혁명 때 그랬듯이 지금은 변화를 수용하여 지혜를 발휘해야 할 때이지, 줄어드는 일자리를 보고 불안감을 느껴 러다이트 운동을 할 때가 아니다.
- 그러한 강력한 지혜를 발휘하기 위해서는 먼저 인간 스스로가 자신들의 뇌가 생각보다 훌륭한 기능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인식하는 것이 필요하다.
- 따라서 앞으로 인간이 해야 할 일은 수백만 년 동안 진화되어오면서 갖추게 된 인간의 뇌만의 기능을 십분 발휘할 수 있는 일을 찾는 것이다.

컴퓨터의 발전은 인간이 따라잡을 수 없을 정도로 빠르게 이루어지고 있다고 한다. 인간의 노동력으로 하고 있는 일들을 컴퓨터가 점점 대체할 수 있게 됨으로써 일자리가 점점 줄어들고 있고 그에 따라 경제구조 또한 흔들리고 있다. ‘기술적 실업’이라고 말하는 이 현상은 빠르게 변하고 있는 디지털 산업과 천천히 변하고 있는 인간 사이의 부조화로 발생하고 있으며 꽤나 심각한 문제로 다가오고 있다. 더욱이 앞으로 컴퓨터는 더욱 강력한 능력을 갖게 되며, 여러 분야에 미치는 영향이 점점 더 커져갈 것이다. 따라서 우리는 컴퓨터를 경쟁자가 아닌 동료로 활용하여 함께 나아가는 방법을 모색하자는 주장이 대두되고 있다.

하지만 나는 현재 인간이 컴퓨터에게 밀리고 있는 것처럼 보이는 것은 컴퓨터기술의 발전으로부터 오는 단순한 과도기적인 현상에 불과하다고 생각한다. 산업혁명 때도 인간은 비슷한 현상을 겪은 적이 있었다. 기계가 그동안 인간이 해왔던 노동을 대신할 수 있게 되어 노동자들이 설 자리를 잃게 되었고 그에 따른 반발도 적지 않았다. 하지만 그 과도기 이후로 인간은 단순한 육체적 노동에서 벗어나 그 당시의 기계가 할 수 없는 새로운 일에 주로 종사하게 되었고 이후로 인간의 삶의 질은 크게 향상되었다.

산업혁명 때 그랬듯이 지금은 변화를 수용하여 지혜를 발휘해야 할 때이지, 줄어드는 일자리를 보고 불안감을 느껴 러다이트 운동을 할 때가 아니다. 하지만 이것은 쉬운 일은 아니다. 산업혁명 때보다 기계가 할 수 있는 일이 훨씬 더 많아졌기 때문에 보다 고차원적인 일을 찾아야 되기도 하고, 인구수도 그 때보다 많아졌기

때문에 범인류적인 변화를 이끌어내려면 강력한 무언가가 필요할 것이다.

그러한 강력한 지혜를 발휘하기 위해서는 먼저 인간 스스로가 자신들의 뇌가 생각보다 훌륭한 기능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인식하는 것이 필요하다. 단순히 생각해보자. 컴퓨터의 역사가 시작된 지는 100년이 채 되지 않은 반면 인류의 역사는 수백만 년 전부터 시작되었다. 수백만 년 동안 자연에 의해 진화해온 인간이 고작 100년 동안 인간에 의해 발전해온 컴퓨터 때문에 설 자리를 잃을 것이라는 것은 좀 이상하지 않은가. 아직 인간들이 자신들의 능력을 충분히 발휘하지 못하고 있다는 증거이다. 사실 컴퓨터의 지능은 인간의 지능과 역할이 다른 것뿐이지 인간을 능가했다고 볼 수 없다. 이 책의 저자가 예시로 든 왓슨을 보자. 이 프로그램이 퀴즈쇼 우승자들을 제칠 수 있었던 이유는 가지고 있는 수많은 데이터를 굉장히 빠르게 분석해내었기 때문이다. 물론 이러한 작업을 인간의 뇌는 해낼 수 없다. 하지만 인간의 뇌가 아직 덜 발달되었기 때문에 그것을 못한다고 보기는 어렵다. 만약 받아들인 모든 정보를 기억하여 분석하는 것이 높은 지능의 기준이라면, 수백만 년 동안 인간의 뇌는 망각장치가 퇴화되는 쪽으로 진화해왔을 것이다. 하지만 그렇지 않았고, 인간의 뇌는 느리고 불완전하지만 종합적이고 직관적인 판단을 할 수 있는 쪽으로 진화해왔다. 이는 컴퓨터와 다른 것이지 결코 뒤떨어진 것이 아니다. 수백만 년 동안 진화해온 뇌가 단순한 육체노동이나 정보 암기에 사용된다는 것은 수지에 맞지 않는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간들이 자신들이 할 수 있는 일의 영역을 계속 저차원적인 수준으로 한정지어 버린다면 당연히 점점 설 자리를 잃게 될 수밖에 없을 것이다. 한마디로 가지고 있는 무기는 써보지도 못하고 기계와의 경쟁에서 패배하는 것이다. 일차원적인 잡일들은 이제 기계의 몫으로 넘기고 새로운 인간만의 일을 찾아야 할 시기이다.

따라서 앞으로 인간이 해야 할 일은 수백만 년 동안 진화되어오면서 갖추게 된 인간의 뇌만의 기능을 십분 발휘할 수 있는 일을 찾는 것이다. 컴퓨터는 우주로 가기 위한 로켓을 제어하고 물리적인 계산을 해주지만 저 먼 우주에는 무엇이 있을지 궁금해 하지는 않는다. ‘저 우주로 가보아야겠다’ 라고 인간이 상상하고 구체적으로 실현하려는 시도를 하지 않는 이상 아무것도 이루어지지 않는 것이다. 이것만 보아도 컴퓨터가 인간이 하는 모든 것을 대체하기에는 아직 멀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이렇듯 앞으로 인간은 지금까지 해왔던 것들보다 훨씬 더 고차원적이고 흥미로운 일들을 충분히 해낼 수 있는 능력을 갖추었고 앞으로는 이 능력을 발휘해야만 기계와의 경쟁에서 살아남을 것이다. 또한 이는 결국 분명히 인간을 퇴보가 아닌 발전으로 이끄는 계기라고 본다.